

동명대,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사업 선정

입력 2023.05.12. 오후 1:16



[부산=뉴시스] 남구 동명대학교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동명대학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3년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사업 운영기관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동명대는 총 1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올 6~10월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이론교육(10시간)과 실습교육(50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강화 및 전문가 양성을 통해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서류평가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 총 120명을 선발해 1학기(6~8월), 2학기(9~10월) 2차례로 나눠 무료교육을 할 계획이다.

1학기 소상공인 참여자 60명을 모집 중이다.

이번 사업 실무자 동명대 복지경영학과 이지은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디지털역량 강화와 온라인 판로개척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1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경민 기자(yulnetphot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사주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855155>
